

2000년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20여년 전!

그러니까 국내에는 겨우 열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전산기를 보유하고 있던 시절에 난 전산과 인연을 맺었다. 못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우리에게 선망의 눈길을 보내왔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JCL(Job Control Language)을 Punch Card에 구멍 뚫어 마치 사흘된 갓난애 다루듯 조심스레 모셔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던 시절...

행여 떨어뜨리기도 하는 날이면 프로그램 소스리스트를 펼쳐 놓고 훑어진 카드를 맞추느라 사무실 바닥을 기어다녀야만 했던 기억들이 아린 추억으로 다가온다.

불행하게도 미국인이 만든 컴퓨터를 배워야만 하는 우리들! 왜 프로그램은 영문으로 작성해야만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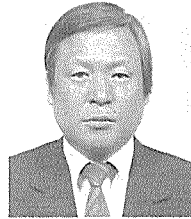
왜 우리는 영어 매뉴얼이나 일본어 매뉴얼을 봐야만 할까? 못되면 조상 탓이라더니 우리의 낙후된 기술을 조상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전산화!

술한 날들의 밤샘 작업!

지금은 아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 버린 전산인만의 고통이 80년대 들어서면서 차츰 단말기와 TSO(Time Sharing Operator) 기를 보급과 함께 Punch가 없는 사무실로 바뀌어 갔다. 메인프레임은 기억용량이 커져가고 Time Shari

辛鍾吉
서울전자계산소장



ng 기능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마치 혼자 컴퓨터를 독점하듯이 사용 가능케 하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다.

8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산업사회가 아닌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도 컴퓨터를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의 웬만한 단순업무는 전산화 되고 사무처리의 혁신과 함께 Real Time(실시간)으로 자료 가공은 물론 사무자동화와 공장자동화의 추진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

90년대 고도 정보화 사회 진입과 함께 복덕방 할아버지가 집 소개해 주고 막걸리 한사발 얻어 마시는 인정미는 멀리 달아나고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7년 남짓한 2000년대!

대망의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비록 휴거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ID(Identification) 카드를 소지해야만 관공서 출입이 가능할 것이며 HA(Home Automation)의 발전으로 PC를 통한 자택근무와 함께 자동차 없는 삭막한(?) 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전쟁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듯이 도도하게 흐르는 정보화의 물결을 수용할 수 있는 슬기와 함께 다시는 조선 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한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